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기희균형 면접구술시험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가] 한 생물학자는 개구리의 망막에 전극을 연결하여 어떤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지를 측정했다. 그 결과 개구리의 망막은 단순히 빛의 패턴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특정한 움직임들이나 작은 검은 점의 이동에만 반응했으며 정지한 사물이나 배경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생물학자는 이 실험을 통해 개구리의 눈이 뇌에 외부 세계의 ‘영상’을 전달하지 않고 사건의 유형(어떤 것의 움직임, 어두워짐 등)을 전달할 뿐이며 그 결과 개구리가 뇌로 인식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 상태가 아니라, 개구리의 눈과 신경계가 재구성한 세계일 뿐이라고 분석하였다.
- [나]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이때 모두들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주장하게 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떤 주장의 절대적 옳음을 뒷받침할 기준이란 있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받아들여진 명제들과 자신의 주장이 배치되지 않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충족하는 주장이 여럿 있다면 이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대개 근거가 약한 주장들은 걸러지게 마련이며,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더 있는 주장들이 남게 된다. 그렇게 남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지칭을 붙이게 되는 것일 뿐이다.
- [다] 포털 뉴스의 댓글에 상위 ‘공감순’ 댓글의 어조가 나머지 댓글의 평균 어조를 1.7배 강화한다는 분석이 있다. 긍정 댓글이 상위에 있는 경우 긍정적 반응이 증가하는 반면, 부정 댓글이 상위에 있는 경우 부정적 반응의 비율이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온라인 여론의 자기 강화적 구조를 보여 주며 초기 프레임의 확산력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라] 생명 과학자는 어떤 현상을 관찰하여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의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그 가설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탐구를 설계하여 수행하며, 탐구를 수행하고 얻은 결과를 가설과 비교하여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면 결론을 도출하고,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하여 다시 탐구를 수행한다. 만약 다른 과학자들도 같은 결론을 얻는다면 가설은 일반적인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탐구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에서 외부 세계의 인지 과정이나 사회적 의견의 정립 과정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 (60점)

[문제 2] 제시문 [가]의 생물학자가 제시문 [라]의 탐구 방법을 택했을 때 처음에 세웠을 가설은 무엇이며, 만약 실험 도중 가설을 수정하였다면 새로운 가설은 무엇일지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제시문 [가]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설명하시오. (40점)